

『장미의 이름』과 금서

김운찬*

【 차 례 】

- I. 에코와 『장미의 이름』
- II. 배경과 주요 스토리
- III. 금지 수단들
- IV. 책과 진리의 양면성

국문초록

움베르토 에코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소설 『장미의 이름』은 이탈리아 북부의 어느 수도원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의 유일한 필사본으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이든 장님 수도사 호르헤는 수도사들이 이 작품을 읽으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금지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무엇보다 먼저 그는 도서관의 미궁 같은 구조와 여러 가지 교묘한 접근 방해 장치를 이용한다. 둘째로 그 문제의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들과 함께 제분하여 보관함으로써 찾기 어렵게 만든다. 또 다른 방법으로 그는 책장의 모서리에 독약을 발라놓음으로써 만약 읽으려고 시도할 경우 죽게 만드는 것이다. 그 외에도 각종 회유와 협박 등을 통해 그 책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사건의 발단은 호르헤 수도사의 웃음에 대한 편협한 관념, 말하자면 ‘미달해석’ 때문이다. 그는 웃음이란 추하고 경박한 것으로 특히 하느님을 섬기는 수도원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은 바로 희극, 그러니까 웃음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따라서 엄숙하고 경건해야 할 수도원에는 어울리지 않는 불온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성과 권위에도 그 세상에서 유일한 필사본에 대한 세속적인 애착 때문에 차마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

없어버리지 못하고 일종의 비공식적인 금서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사건의 전모는 윌리엄 수도사의 명석한 기호 해석과 합리적인 분석에 의해 밝혀진다.

열쇠어 : 움베르토 에코, 장미의 이름, 아리스토텔레스, 금서, 웃음, 해석, 도서관

I. 에코와 『장미의 이름』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 1932~2016)는 1980년 두툽한 분량의 소설 『장미의 이름(*Il nome della rosa*)』을 발표하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이 소설은 곧바로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1981년에는 이탈리아 최고의 문학상인 ‘스트레가(*Strega*)’ 상을 받았다. 그리고 그런 인기는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단숨에 수천만 부가 판매되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으며 지금까지 모두 47개 외국어로 번역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번역본이 나왔다. 하나는 이동진의 『장미의 이름으로』(우신사, 1986)이고, 다른 하나는 이윤기의 『장미의 이름』(열린책들, 1986)이다. 또한 세계적인 인기로 힘입어 프랑스의 장 자크 아노(Jean Jacques Annaud, 1943~) 감독은 1986년 손 코네리 주연의 영화로 제작하기도 했다.

단번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해진 에코의 성공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았다. 뒤이어서 『푸코의 진자』(1988), 『전날의 섬』(1994), 『바우돌리노』(2000), 『로아나 여왕의 신비한 불꽃』(2004), 『프라하의 묘지』(2010)에 이어 마지막 소설 『창간 준비호』(2015)를 발표하였다. 이 작품들은 『장미의 이름』에 미치지 못하지만 꾸준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외국어로 번역되었다.

『장미의 이름』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니다. 상당한 지적 소양을 갖춘 독자들에게도 어렵고 난해하기로 유명하다. 라틴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 텍스트에서 따온 구절들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으며, 신학과 철학은 물론이고 약초학, 광학, 천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많은 문

헌들을 인용하면서 마치 전문적인 학술 논문처럼 해박한 지식 세계를 펼쳐 보이고 있다. 분량도 만만하지 않아 이탈리아어 원서를 기준으로 500쪽을 훌쩍 넘긴다. 이윤기의 우리말 번역본은 두 권으로 분권되어 출판되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읽을수록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고급스런 텍스트 읽기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작품으로 유명하며, 다양한 논의와 흥미로운 탐색의 대상이 되었다. 예를 들어 소설의 토대가 되는 아드소의 수기(手記)나 작품 안에서 언급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의 존재와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그런 논란과 세간의 관심을 반영하듯이 에코는 1983년 『장미의 이름』에 대한 「주해(Postille)」를 발표하기도 하였다(이 텍스트는 우리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이 소설의 어려움은 당연히 번역가를 난처하게 만들고 때로는 곤경에 빠뜨리기도 했다. 그 구체적인 증거로 이윤기의 번역본은 일부 날카로운 독자의 지적을 받았으며, 그리하여 1992년과 2000년 두 번에 걸쳐 새롭게 수정하고 보완한 개역판으로 출판되었다. 영어 번역에서도 윌리엄 위버(William Weaver, 1923~2013)의 번역본은 500쪽이 넘는 분량에서 대략 24쪽 정도가 누락된 상태로 번역되었다(우리말 번역본은 두 가지 모두 위버의 영어 번역본에서 옮긴 것이다). 그런 누락에 대해 에코는 무시해도 좋을 분량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대략 전체에서 2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미국 출판사의 요구로 에코와 번역가가 상의하여 삭제한 것이다. 무엇보다 일반 독자들에게 난해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절들을 번역에서 생략한 것인데, 난해하고 어렵다는 세평을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이다.

그런데도 『장미의 이름』은 지속적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을 뿐 아니라 일부 열광적인 마니아 독자층을 형성하기도 했다. 쉽게 읽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고유의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에코 소설의 매력은 무엇일까? 바로 정교한 플롯과 탄탄한 서사

구조를 통해 읽기의 욕망을 계속 자극하면서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주요 동인일 것이다. 그리하여 거기에 매료된 독자는 여러 가지 텍스트 외적 정보들을 요구하는 복잡한 소설 속의 세계를 탐험해 보려는 모험을 감행하게 된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실제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면서 추리소설 기법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역사소설과 추리소설이 융합되면서 사건은 독자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읽기의 즐거움을 증대시킨다.

II. 배경과 주요 스토리

『장미의 이름』은 중세를 마무리하는 르네상스가 시작될 무렵인 1327년 11월 말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산맥에 자리한 어느 베네딕투스회 수도원에서 일주일 동안에 일어나는 일련의 살인 사건과 기타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물론 그 수도원은 소설에서 허구로 상상된 것이지만, 에코의 고향 알레산드리아(Alessandria)에서 멀지 않은 피에몬테 지방 서쪽 수사(Susa) 계곡의 피르키리아노(Pirchiriano) 산에 있는 산미켈레 수도원(Sacra di San Michele)을 모델로 하였다고 한다.

소설의 이야기는 그 모든 사건을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멜크(Melk) 출신의 수련 수도사였던 아드소가 오랜 세월이 지난 뒤 말년에 수기로 꼼꼼하게 재구성하여 서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사건은 당시 수도원 생활에서 기준이 되는 성무 일과(聖務日課) 시간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주요 등장인물은 서술자인 아드소를 비롯하여 그의 스승 바스커빌(Baskerville) 사람 윌리엄,¹⁾ 나이든 장님 수도사인 스페인의 부르고스 사람 호르헤(Jorge da Burgos)이며, 수도원장을 비롯한 다른 여러 수도사들이 등장한다.

1) 이탈리아어 이름은 구리엘모(Guglielmo)이지만, 출신지 언어의 이름을 따라 표기하였다. 하지만 일부 등장인물의 경우 출신지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실제의 역사적 사건들과 일부 실존 인물들이 중요한 배경을 형성하고 있다. 당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는 루트비히 4세(재위 1314~1347)였고, 교황은 아비뇽에서 선출된 요하네스 22세(재위 1316~1334)였다. 그러니까 소위 ‘아비뇽 유수(幽囚)’에 따른 교황권의 약화, 로마와 아비뇽 사이의 갈등, 교황과 황제 사이의 싸움과 권력 다툼, 수도회들 사이의 암투, 종교의 교리를 둘러싼 논쟁,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대한 비판과 토론, 이단과 종교재판 등 역사적 사건들이 장황스러울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되면서 수도원의 살인 사건과 교묘하게 어우러진다.

무엇보다 독특하고 음산한 분위기의 수도원에서 벌어지는 연쇄 살인 사건을 치밀하게 추적해가는 과정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더구나 그 모든 것이 책 한 권 때문에 빚어진다는 범죄의 동기도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희극에 대해 논의하는 『시학』 제2권의 유일한 필사본이 그 수도원의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당시 유럽의 지식과 학문 세계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공개되지 않은 저술을 유일한 필사본으로 소장하고 있다는 것은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었다.

사건의 전모는 윌리엄 수도사의 날카로운 추적과 해석에 의해 최종적으로 밝혀지게 되지만, 사건이 해결되는 순간 수많은 지식의 총체이자 음모의 산실이었던 도서관과 함께 수도원은 불타고 폐허만 남는다. 그런 주요 사건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겹가지 사건들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예를 들어 웃음에 대한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불꽃처럼 순식간에 불타오르는 아드소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수도사들 사이에서 갖가지 욕망이 빚어내는 음모와 암투가 벌어지고, 아비뇽 교황의 사절단과 종교재판관, 황제가 보낸 사절단이 수도원에 도착하면서 격렬한 논쟁과 다른 혼란스러운 사건이 벌어진다.

그 모든 사건과 함께 수도원에서는 끔찍하고 수수께끼 같은 죽음이 잇따라 발생하는데, 의혹의 시선은 도서관으로 집중되면서 문제의 책이 태

풍의 눈처럼 떠오른다.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이라는 사실은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야 명시적으로 확인되지만 앞부분에서 이미 언급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 제2권을 특히 웃음에 할애했다”(120쪽)²⁾는 것인데, 그리스어를 잘 아는 살베멕 사람 베난치오³⁾가 그렇게 말했다고 읍살라 사람 벤초가 전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단지 전해들은 말이며 일종의 복선처럼 언급될 뿐이다. 더군다나 베난치오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죽은 시신으로 발견되며, 따라서 책의 실존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사실 그 책은 늙은 장님 수도사 호르헤가 자기 고향인 스페인 북부의 카스티야이레온(Castilla y León) 지방에서 발견하여 훔쳐온 것이다. 수도원의 도서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호르헤는 장서들의 수집을 위해 고향으로 갔고, 거기에서 「요한 묵시록」의 화려하고 멋진 주석서들과 함께 그 희귀한 보물을 발견해서 몰래 훔쳐와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른 나이에 눈이 멀어버리는 바람에 수도원장이 되지 못하였다(306쪽 및 470쪽). 그런데 호르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 제2권에서 논의하는 희극, 말하자면 인간의 웃음이란 하느님의 신성한 진리를 조롱하고 왜곡하며, 인간을 천박한 광대로 전락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그 책을 다른 수도사들이 읽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고, 급기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왜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문제의 책을 읽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는가? 만약 그 세상에서 유일한 필사본이 절대로 읽지 않아야 하는 책, 소위 불온서적이라고 판단하였다면, 그것을 불태우

2) 이 글에서는 1983년 발표된 「주해」가 부록으로 실려 있는 1990년의 문고판(*Il nome della rosa*, Milano: Bompiani)을 참조 텍스트로 삼았다. 본문에 인용된 구절의 쪽 수는 이 책을 기준으로 한다.

3) 이탈리아어 이름은 살베멕 사람 베난치오(Venanzio da Salvemec)인데, 살베멕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없다. 만약 라틴어 식 이름으로 표기하면 베난티우스(Venantius) 또는 베난키우스(Venancius) 정도가 될 것이다.

든지 다른 방식으로 없애 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호르헤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 불온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도서관장이 되고자 했을 만큼 책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었다. 또한 스스로 고백하듯이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었기 때문이다(476쪽). 당시 유럽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성과 권위는 거의 절대적이었는데, 그의 공개되지 않은 저술의 유일한 필사본을 갖고 있다는 것은 출세의 열쇠가 될 수 있었다. 그런 세속적인 자부심과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한 호르헤는 불온한 내용의 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차마 없애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은 절대 손대지 못하도록 일종의 비공식적인 금서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분명히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금서일 뿐이다. 유럽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금서를 지정한 대표적인 사례는 16세기 가톨릭교회에서 나왔다. 들불처럼 퍼지는 종교 개혁의 물결을 저지하기 위하여 열린 트렌토 공의회(1545~1563)가 한창이던 1559년에 ‘금서 목록(Index librorum prohibitorum)’을 제정하여 널리 공표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나이든 장님 수도사 호르헤가 도서관에 소장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의 유일한 필사본을 아무도 읽을 수 없는 책, 말하자면 일종의 금서로 만들기 위해 사용한 수단과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I. 금지 수단들

호르헤는 다른 사람들이 문제의 책을 읽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사람들의 접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그 중에는 호르헤가 교묘하게 마련한 것도 있었고, 우연히 방해 장치로 이용되는 것도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대비책에도 불구하고

수수께끼 같은 책을 읽어보고 싶은 호기심은 수도사들을 자극했고, 그로 인해 의문의 죽음들이 이어지면서 수도원에는 뒤숭숭하고 음산한 분위기가 확산된다.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 수도사들의 접근을 방해하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파국으로 치닫게 한다.

1. 웃음에 대한 비판

문제의 책과 관련하여 나이든 장님 수도사 호르헤는 웃음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그로 인해 윌리엄 수도사와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 호르헤의 웃음 비판은 소설 전반에 걸쳐 나오는데, 무엇보다 특히 엄숙하고 경건해야 할 수도원에서 경박한 웃음은 경계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웃음은 육체를 뒤흔들고, 얼굴 표정을 일그러뜨리고, 인간을 원숭이와 비슷하게 만들고”(138쪽), 따라서 “웃음은 우리 육체의 어리석음이자 타락이며 허약함”(477쪽)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웃음에 대해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데다 특히 보에티우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에 대해 논평한 이후, 하느님의 말씀이 갖는 신성한 신비는 삼단논법과 범주라는 인간의 해학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476쪽). 웃음의 본질을 둘러싼 논쟁은 흥미로운 주제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가 웃은 적이 있는지, 만약 그랬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등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논박하기도 한 것이다(140쪽).

웃음에 대한 호르헤의 이런 인식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 2권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편협한 종교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데, 거기에서 인간 고유의 웃음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왜곡되고 비틀린 해석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간단히 말해 웃음에 대한 호르헤 수도사의 편견으로 인해 유서 깊은 수도원에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에코의 기호학 이론은 이른바 ‘해석 기호학’으로 일컬어지는 만큼 수신자에 의한 해석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에 의하면 문학 작품을 비롯한 모든 텍스트는 다양하고 서로 다른 해석을 허용하지만, 때로는 지나치거나 부족한 해석, 말하자면 ‘과잉 해석’이나 ‘미달 해석’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에코는 기호학에서 이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소설에서 다루었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그의 소설에서는 기호학적 암시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에코의 소설은 ‘기호학의 소설화’ 또는 ‘소설화된 기호학’이라 부르기도 한다. 특히 해석의 문제는 여러 소설에서 중요한 주제가 된다. 예를 들어 『장미의 이름』은 호르헤의 웃음에 대한 ‘미달 해석’에서 비롯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푸코의 진자』는 세 젊은이가 장난삼아 구상해본 ‘계획’에 대한 지나친 ‘과잉 해석’으로 빚어지는 광적인 믿음과 음모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다.⁵⁾

사실 웃음에 대한 호르헤의 비판은 문제의 책에 접근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수단은 아니다. 하지만 그 주요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논박한다는 점에서 최소한 그런 의도를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중요한 것은 『장미의 이름』에서 이야기하는 엄청난 사건이 웃음에 대한 ‘미달 해석’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호르헤 수도사는 마지막에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면서, 말하자면 독약이 묻은 책장을 갈기갈기 찢어 씹어 먹으면서 바로 자기 자신이 웃는다. 아드소는 호르헤가 웃는 것을 처음 보았다고 회고하는데, 입술에 즐

-
- 4) ‘과잉 해석’과 ‘미달 해석’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에코의 저술로는 Stefan Collini 편, *Interpretation and Overinterpretation*, Cambridge/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1992 (이탈리아어 번역본, *Interpretazione e sovrainterpretazione*, Milano: Bompiani, 1995)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 책은 1990년 캠브리지(Cambridge) 대학교에서 개최된 태너 강좌(Tanner Lectures)에서 에코가 강연하고 여러 학자들과 토론한 내용을 엮은 것으로 영어로 먼저 출판되었고 나중에 이탈리아어 번역본으로 출판되었다.
- 5) 에코의 기호학 이론과 소설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개략적인 고찰로는 줄고, 「에코의 소설에 나타난 기호학의 문제들」, 『이탈리아어문학』 13집, 한국이탈리아어문학회, 101~128쪽, 2003 참조.

거움의 표정이 없이 목으로 웃었으며, 마치 우는 것 같았다고 묘사한다(483쪽). 그렇지만 어쨌든 웃었던 것이다. 마치 자신의 오류를 죽음으로 증명하면서 진실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다.

2. 도서관과 미궁

『장미의 이름』에서 사건의 주요 무대이자 수도원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도서관이 있는 ‘건물’⁶⁾이다. 그 도서관은 당시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가장 풍부하고 귀중한 장서를 자랑하였고, 따라서 각지에서 뛰어난 학자들과 함께 필사본 책의 제작을 위한 필사자(筆寫者)들과 채식화가들, 주석가들이 모여들었으며, 그 덕분에 수도원은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런 명성을 반영하듯이 도서관 건물은 엄청난 규모와 크기를 자랑한다. 소설의 서두에서 서술자 아드소가 상세하게 묘사하는 바에 의하면, 그것은 “멀리에서 보면 4각형처럼 보이는 8각형 구조물”(29쪽)인데, 4각형의 각 모서리 부분은 7각형 탑처럼 되어 있고, 따라서 정확히 말하자면 32각형이지만, 모서리의 7각형 구조물이 외부에서는 5각형으로 보이기 때문에 24각형으로 보이는 건물이다. 그리고 건물의 한가운데에는 8각형의 안뜰이 있으나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렇게 장엄한 도서관 건물은 아드소의 눈에 “하느님의 도시”를 표현하는 완벽한 구조이며, 수비학(數祕學)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처럼 “수많은 신성한 숫자들의 놀라운 조화”(29쪽)로 보인다. 그 건물의 일층에는 부엌과 식당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층은 필사본 책들을 제작하는 필사실(筆寫室)scriptorium로 되어 있고, 삼층이 바로 책들이 보관되어 있는 도서관이다.

그런데 탁 트인 공간의 일층이나 이층과는 달린 삼층의 도서관은 복잡

6) 소설에서 그 건물에 붙여진 별도의 이름은 없고 단지 대문자로 시작하는 Edificio, 즉 그냥 “건물”이라고 부른다. 참고로 이윤기는 “본관”으로 옮겼는데, 자칫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아무리 도서관이 중요하다고 해도 수도원에서 핵심적인 장소는 어쨌든 성당일 것이며, 성당은 바로 수도원 한가운데에 별도의 건물로 있기 때문이다.

한 미궁으로 되어 있다. 도서관은 많은 방들로 나뉘어져 있으며, 서가에 책들이 보관되어 있는 각각의 방은 이웃하는 다른 방들과 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방의 모양도 서로 다르고, 창문이 있거나 없고, 다른 방으로 통하는 문의 숫자도 서로 다르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계산해낸 바에 의하면 도서관의 방은 모두 56개인데(220쪽), 그 방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거대한 미궁을 형성하는 것이다.

도서관이 미궁이라는 인식은 소설의 서두에서 이미 언급된다. 수도원장은 윌리엄에게 도서관이 바로 “정신적 미궁이며, 또한 지상의 미궁”이라고 단언한다(46쪽). 그리고 나이든 수도사 그로타페라타 사람 알리나르도는 이렇게 말한다. “이 미궁은 세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지요. 들어가는 자에게는 넓지만, 돌아오는 자에게는 지극히 좁아요.”⁷⁾ 도서관은 거대한 미궁, 세상의 미궁에 대한 기호라오. 들어가지만 나올 수 있을지 모른답니다. 헤라클레스의 기둥은 침범하지 않아야 해요.”(163쪽)

미궁이란 일단 들어가면 나오는 길을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진 곳이며, 따라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게 만드는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불리 들어갈 수 없는 금단의 장소가 되며, 대부분 아예 접근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다. 수도원장의 말에 의하면 도서관장과 도서관장 조수 두 명만이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수도사들은 아예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다(46쪽). 그리고 도서관 건물에 들어가는 출입문, 그러니까 일층의 부엌과 식당으로 들어가는 문들은 일과 후에 도서관장이 직접 안에서 잠그기 때문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다고 한다(92쪽). 하지만 으레 그러하듯이 그런 구조물에는 비밀 통로가 있기 마련이다. 성당과 연결된 지하 납골당을 비롯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통로들이 있고, 또한 도서관 내부의 비밀 장소에 접근할 수 있

7) 소설에서 이 구절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원문은 다음과 같다. *Hunc mundum tipice laberintus denotat ille. Intranti largus, redeunti sed nimis artus.* 이것은 이탈리아 북부 피아첸차(Piacenza)에 있는 산사비나(San Savina) 성당의 모자이크에 새겨진 글귀에서 인용한 것이다.

는 통로도 따로 있다.

그 도서관 건물은 사건의 주요 무대이자 여러 등장인물들의 갖가지 욕망이 뒤엉키고 분출되는 곳이다. 그런 공간적 중요성을 강조하듯이 소설의 첫 장에는 수도원의 조감도가 나와 있으며,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미궁처럼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도서관의 평면 배치도가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다(323쪽). 물론 그것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배려이다. 만약 그 구조를 언어로만 묘사하고 설명한다면, 대부분의 독자는 복잡한 미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것이 분명하다.

밤중에 몰래 잠입해 들어간 윌리엄과 아드소도 처음에는 길을 잃고 헤맨다. 복잡하게 서로 연결된 방들 사이에서 각 방의 문 위에 새겨진 「요한 묵시록」의 라틴어 구절만이 이정표 역할을 할 뿐이다. 게다가 여러 가지 교묘한 방해 장치들 때문에 곤혹을 치르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미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리아드네의 실타래가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장미의 이름』에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즉 수학적 계산과 논리적 추론으로 그 구조를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그림으로 제시된 평면 배치도가 그 결과이다.

그러한 도서관의 미궁 구조는 문제의 책에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는 데 효율적인 장치로 기능한다. 또한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미궁의 한 곳에다 특수한 조작을 통해서만 출입문이 열리는 비밀의 방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라틴어로 피니스 아프리카이(finis Africae), 말하자면 “아프리카의 끝”으로 일컬어지는 곳이다. 그 비밀의 장소에 대해서는 벤초가 처음 언급하고(121쪽), 베난치오가 남긴 암호문 메모에서도 발견된다(287쪽).⁸⁾ 바로 그 밀실에다 『시학』 제2권의 유일한 필사본을 감추

8) 베난치오가 문제의 책에 대한 정보를 양피지에 메모해 놓은 방식은 아주 은밀한 데다 전형적인 암호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 특수한 잉크를 사용하여 써놓았기 때문에 평소에는 글씨가 보이지 않다가 양피지에 불을 가까이 갖다 대야 보이도록 해두었으며, 또한 황도 12궁과 행성을 표시하는 기호를 알파벳처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든 것이다(170쪽). 윌리엄 수도사는 이 암호문을 해독하지만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문장이다. 해독한 라틴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Secretum finis Africae manus supra idolum age

어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의 비밀 조작법을 알아야 하는데, 윌리엄 수도사는 막바지에 베난치오의 수수께끼 같은 암호문을 해독한 뒤에야 해결하게 된다. 물론 거기에도 다른 비밀 통로가 있지만 그것 역시 끝에서야 밝혀진다.

3. 미궁 속의 방해 장치들

하지만 만약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다면 제아무리 복잡한 미궁도 길을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미궁에 침입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도서관의 여러 곳에도 교묘한 방해 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다. 그런 장치는 특히 밤중에 몰래 접근하려는 사람에게 겁을 주고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 장치는 거울인데, 자기 자신의 반사된 모습이 마치 “유령처럼 흔들리고 요동치는 몸체의 위협적인 크기의 거인”(175~6쪽)처럼 보이게 만드는 구불구불한 거울이다. 거울이 일반화되지 않은 중세에, 더구나 칠혹 같은 한밤중에 미궁 속에서 커다랗게 확대되어 흐느적거리며 움직이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아드소가 그랬듯이 “악마”라고 믿는 것은 아마 당연한 일일 것이다.

두 번째는 환각을 불러일으키면서 헛것을 보게 만드는 연기이다. 그 냄새를 맡아본 윌리엄 수도사의 설명에 의하면 그것은 아랍인들의 전설적인 “산(山)의 노인(Veglio della Montagna)”이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도록 살인자들을 보내기 전에 흡입하게 만들었던 것, 그러니까 대마초 또는 해시시(hashishi) 연기라는 것이다(179쪽). “산의 노인”이란 11세기 후반에 페르시아 북부의 엘부르즈 산맥에 종교 공동체를 설립하고 알라무

primum et septimum de quatuor. 개략적으로 직역하면 “아프리카의 끝의 비밀은 우상 위의 손이 넷의 첫째와 일곱째에 작용한다.” 언어의 메타 언어적 기능을 활용한 이 구절의 궁극적인 의미는 소설의 끝부분에서야 밝혀진다. 말하자면 “넷”이라는 단어를 구성하는 알파벳 quatuor의 첫째와 일곱째, 그러니까 q와 r을 누르면 비밀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트 요새를 세운 다음 이슬람교 이스마일 파 자객들의 조직을 만든 하산 이 사바흐(1050?~1124)를 가리키는데, 그 조직의 구성원 자객들은 마약 해시시에 취한 상태에서 인근 지역의 통치자들이나 십자군 전쟁 동안에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살해했다고 한다.

이런 교묘한 장치들은 수도원의 순진한 수도사들에게 악마 같은 존재들이 도서관을 지키고 있다는 관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윌리엄 수도사의 논평에 의하면 그런 장치들과 미궁 구조로 인해 수도원의 도서관은 아이러니하게도 일종의 “금지된 지식의 장소”가 되었고, “여러 가지 아주 교묘한 고안물들로 방어되고 있는” 곳이 되어버렸다. 또한 그렇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과학이 깨우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추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179쪽). 그리하여 밤중에 도서관에 몰래 들어갔던 어느 수도사는 “뱀, 머리 없는 사람, 머리가 둘 달린 사람”을 보았다는 말이 수도사들 사이에 떠돌았던 것이다(97쪽).

아울러 도서관의 건축학적 구조나 설비 역시 공포감을 유발하는 데 기여하는데, 예를 들어 환기를 위하여 뚫어놓은 틈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그렇다. 복잡한 미궁의 통로를 조심스럽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부딪친다면 불청객의 간담은 분명히 서늘해질 것이다.

4. 읽기 방해 수단들

그런 각종 대비책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문제의 책이 노출되지 않도록 감추기 위해 다른 텍스트들과 함께 제본하여 보관한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책들의 목록에 의하면 “아프리카의 끝” 항목에는 네 권의 책 제목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 권의 책처럼 보이게 묶어놓았다(442쪽). 함께 제본된 첫 번째 텍스트는 재치 있는 말들에 대한 아랍어 필사본이고, 두 번째 텍스트는 연금술에 대한 이집트 책자

를 번역한 시리아어 필사본이고, 세 번째 텍스트는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의 만찬(Coena Cypriani)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텍스트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문제의 『시학』 제2권이다. 그리고 목록에 라틴어로 적혀 있는 이 텍스트의 제목은 “처녀의 음란함과 창녀의 사랑에 대한 머리 없는 책(Liber acephalus de stupris virginum et meretricum amoribus)”으로 언뜻 보면 무슨 책인지 알 수 없도록 해 놓았다. 여기에 대해 나중에 윌리엄이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처녀의 음란함과 창녀의 사랑”이란 세비야의 이시도루스(라틴어 이름은 히스파니아의 이시도루스Isidorus Hispalensis, 560?~636)가 희극을 정의하면서 언급한 것이며(475쪽), “머리 없는 책”이란 제목도 없고 앞의 일부가 뜯겨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이다(445쪽).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도서관 외부로 반출되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도 윌리엄은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 그 책은 예를 들어 필사실에서 베난치오가 사용하던 책상이나 본초학자 수도사 장트벤델 사람 세베리노의 실험실에서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속임수 덕분에 정작 중요한 텍스트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고, 단지 지극히 제한된 숫자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수많은 난관을 거쳐 문제의 책에 접근하는 데 성공하고 마침내 읽으려고 할 경우 최종적으로 막기 위해 호르헤 수도사는 극단적인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다. 거기에는 문제의 책을 제작한 종이의 재질을 활용하였다. 소설의 막바지에서 밝혀지듯이 그 책은 당시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던 양피지가 아니라 다른 유형의 종으로 만들어졌다. 바로 호르헤 수도사의 고향 부르고스의 조그마한 마을 실로스(현재의 공식적인 이름은 산토도밍고데실로스Santo Domingo de Silos)에서 생산되었던 희귀한 종으로 제작된 것이다. 그 종이에 대하여 문제의 책을 직접 보았던 벤초는 윌리엄 수도사에게 이렇게 묘사한다. 그것은 “다른 양피지들보다 더 부드러운 이상한 양피지” 같았고, “양피지 같지 않

은 양피지”였으며, “간단히 말해 이상한” 종이였다는 것이다. 그러자 윌리엄 수도사는 그 이상한 종이가 바로 라틴어로 *charta lintea*, 즉 “아마(亞麻) 종이”라 부르고, 스페인어로는 *pergamino de pano*, 즉 “천 양피지”라 부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446쪽). 그것은 아랍인들이 처음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제작한 종이라는 것이다. 나중에 윌리엄은 그 종이를 가리켜 이탈리아어로 “천 종이(*carta di panno*)”라고 부른다(470쪽).⁹⁾

서술자 아드소는 윌리엄 수도사가 문제의 책을 펼쳐보는 것을 보면서 말한다. “종잇장들은 더 부드러운 다른 재질로 되어 있었고, 첫 장은 거의 뜯어져 있었으며, 세월과 습기로 인해 다른 책들도 으레 그렇듯이 가장자리 한쪽이 닳았고, 하얀 얼룩들이 묻어 있었다.”(471쪽) 간단히 말해 닳은 종이는 양피지에 비해 더 얇고 부드러웠다는 것이다. 그 결과 종이를 들끼리 더 잘 들러붙을 수 있었다. 아드소의 관찰에 의하면 “종이 재질이 습기에 젖고 변질되면서 일종의 접착 아교질을 형성할 때처럼, 위쪽 가장자리 근처에서, 재단한 선을 따라 종잇장들이 서로 들러붙어 있었다.”(472쪽) 그런 종이의 재질을 이용하여 호르헤 수도사는 책의 가장자리에다 치명적인 독약을 발라놓았고, 불행한 희생자들은 들러붙은 책장을 떼어내서 넘기기 위해 손가락에 침을 발라가면서 읽다가 독약에 중독되어 죽어갔던 것이다.

5. 기타 우연적인 요소들

그 외에도 다른 몇 가지 요인들이 도서관과 문제의 책에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의문의 죽음과 함께 수도원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9) 그런 종이를 우리나라에서는 ‘닝마 종이’라고 부르는데 원료의 충당 방식 때문이다. 종이 제작 기술이 서양에 처음 전해졌을 때 주로 사용한 원료는 마(麻)나 아마, 면 등의 섬유였는데, 닳고 헤어져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옷이나 천, 말하자면 닳은 옷을 모아 사용하였다. 하지만 닳은 옷은 충분하게 많이 모으기 어려웠고 값도 비쌌기 때문에 널리 보편화되지 못하였다.

사건은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확산시킨다. 교황의 사절과 종교재판관, 황제의 사절이 도착하고, 일부 수도사의 과거 이단 행적이 드러나고, 격렬한 교리 논쟁이 벌어지고, 수세에 몰린 일부 수도사가 도피하고, 아드소와 불꽃같은 사랑을 나누었던 마을의 아가씨와 살바토레 수도사가 체포되고, 심문 중에 살바토레는 악마 숭배적 발언을 하는 등 연이어서 터지는 사건의 연쇄가 그런 분위기를 부추긴다.

게다가 수도사들의 죽음은 「요한 묵시록」의 강렬하고 무서운 예언적 이미지들과 연결된다. 「요한 묵시록」에서는 특히 일곱 천사가 차례로 나팔을 불자 마치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는 것처럼 끔찍한 천재지변과 재앙이 벌어지는 광경을 묘사하는데(8장 6절~10장 11절), 잇따르는 수도사의 죽음이 그런 예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순서대로 보자면 아델모의 죽음은 우박, 베난치오는 피, 베렌가리오는 물, 세베리노는 하늘, 말라키아는 전갈과 연결될 수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던 것이다(473쪽).

일곱 나팔과 연쇄 죽음 사이의 일치 가능성은 아델모에 이어 두 번째로 베난치오의 주검이 돼지 피가 담긴 항아리 안에서 발견되었을 때 이미 지적되었다. 나이트 알리나르도 수도사가 「요한 묵시록」에서 예언된 것이 수도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 번째는 물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베렌가리오 수도사가 목욕장의 물속에서 발견된다. 알리나르도는 그것이 하느님의 형벌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한다(164쪽). 하느님의 형벌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어떤 불가사의한 힘 또는 악의적인 계획에 의한 것이든 상관없이, 잇따라 발생하는 수도사들의 죽음이 「요한 묵시록」의 예언과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면서 수도원에는 견잡을 수 없는 공포 분위기가 확산된다.

물론 그것은 순수한 우연의 일치였을 뿐이다. 하지만 그 우연의 일치가 수도사들에게 불려일으킨 두려움과 파급 효과는 놀라울 정도였다. 심지어 호르헤 자신도 거기에 몰입되어 믿었던 것처럼 마지막에는 일곱째

나팔에 대해 예언하는 천사가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실제로 자기 자신이 그대로 실천한다. 말하자면 독약을 발라놓은 문제의 필사본을 한 장씩 뜯어내더니 씹어 삼키면서 말한다.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기록하지 말고 봉인해 두어라. 이것을 받아 삼켜라. 이것이 네 배를 쓰리게 하겠지만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바로 「요한 묵시록」 10장 4절과 9절의 구절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한다. “알겠느냐? 이제 나는 말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을 나 자신의 무덤 안에¹⁰⁾ 봉인하겠다.”(483쪽) 간단히 말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이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자신의 몸 안에, 이제 죽어서 무덤이 될 자신의 뱃속에 삼키겠다는 뜻이다.

다른 한편으로 「요한 묵시록」의 구절들이 도서관의 미궁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도 흥미롭다. 도서관 모든 방의 문 위에는 「요한 묵시록」의 여러 곳에서 인용된 라틴어 구절이 적혀 있는데, 예를 들면 1장 1절의 구절 *Apocalypsis Iesu Christi*(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비롯하여 4장 4절의 *Super thronos viginti quatuor*(어좌 스물네 개), 6장 8절의 *Nomen illi mors*(그 이름은 죽음) 등이 적혀 있는 것이다. 이 글귀는 여러 방에서 반복되어 발견된다. 윌리엄과 아드소는 나중에는 그 구절들의 알파벳 첫 글자를 조합하면 만들어지는 단어가 해당되는 방에 배치되어 있는 장서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도서관 건물의 네 모서리에 있는 7각형 탑은 각각 동서남북을 향하고 있는데, 마치 거기에 맞추려는 것처럼 동쪽에 있는 방들의 머리글자를 연결하면 *FONS ADAE*(아담의 기원)와 *IUDAEA*(유대), 서쪽에는 *HIBERNIA*(히베르니아)와 *YSPANIA*(이스파니아), *ROMA*(로마), 남쪽에는 *LEONES*(사자)와 *AEGYPTUS*(이집트), 북쪽에는 *ANGLIA*(잉글랜드)와 *GERMANI*(게르마니아)가 자리하고 있다(323~324쪽). 이것은 도서관 방들과 그 안

10) 원문에는 *nella tomba che divento*로 되어 있는데, 직역하자면 “내가 지금 되는 무덤 안에” 정도가 될 것이다. 죽어가는 자신이 바로 하나의 무덤이 될 것이며, 그 안에다 봉인하겠다는 뜻이다.

에 소장된 장서들의 분류와 배치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미궁 안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해주는 지도이자 이정표 역할을 한다. 그것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수도사들의 죽음이 「요한 묵시록」의 이미지와 연결되면서 도서관을 금단의 장소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IV. 책과 진리의 양면성

그러나 그 모든 대책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에 이끌린 수도사들의 접근을 완전히 막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로 인한 잇따른 죽음과 사건의 전말은 때마침 수도원을 방문한 윌리엄 수도사에 의해 밝혀진다. 윌리엄은 도착하던 날 아침 달아난 수도원장의 말을 찾는 과정에서 보여준 놀라운 기호 해석 능력으로 의문의 죽음을 해결해 달라는 수도원장의 부탁을 받았던 것이다. “언제나 논리가 보편적 무기라고 믿었던”(266쪽) 윌리엄은 그 논리를 토대로 범죄의 실마리들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모든 과정을 재구성해냈다. 예코는 추리 소설 애독자였는데, 탐정이 범인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핵심 열쇠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는 모든 단서, 말하자면 기호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데 있다.¹¹⁾ 『장미의 이름』에서 윌리엄은 바로 올바른 기호 해석을 토대로 하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이었다. 윌리엄에게 “기호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길을 찾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고, 따라서 자신은 “기호들의 진리를 의심한 적이 없다”고 단언한다(495쪽).

윌리엄의 개입으로 인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을 일종의 금서로 만들려던 호르헤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호르헤는 그

11) 기호학과 추리 소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예코의 관심은 1983년 헝가리 출신 미국 기호학자 시벡(Thomas A. Sebeok, 1920~2001)과 공동으로 편집한 저술 『셋의 기호. 퍼스, 홈즈, 뉘핑(The Sign of Three. Peirce, Holmes, Dupin)』(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유일한 필사본을 갈기갈기 찢어서 씹어 삼키고 또한 화재로 불타게 만들으로써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영원히 읽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도서관과 수도원이 불타고 폐허로 전락하는 참사로 끝났지만, 역설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자신의 의도를 끝끝내 관철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은 책 한 권 때문에 벌어진 것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장미의 이름』에서 또 다른 실질적 주인공은 책과 도서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유일한 필사본은 갖가지 욕망과 호기심의 원천이었다. 윌리엄 수도사도 그 귀한 책을 직접 보고 싶은 욕망을 감추지 않는다. 그는 ‘아프리카의 끝’, 즉 도서관의 밀실에서 호르헤 수도사와 최종적으로 대면한 자리에서 문제의 책을 보고 싶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다섯 문장이 모두 *Voglio vedere*, 즉 “나는 보고 싶소”로 시작된다. 각각의 문장 안에 함축된 의도와 동기는 달리 해석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책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문장에서야 비로소 그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 그러니까 “상실되었거나 애당초 쓰지 않았다고 모두가 믿는 책”의 “유일한 필사본”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힌다(470쪽).

윌리엄 수도사가 그렇게 보고 싶다고 다섯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욕망과 호기심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바로 에코 자신의 욕망을 반영하는 듯하다. 에코는 자타가 공인하는 고서 애호가이며 수집가로 희귀본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게 강렬하다.¹²⁾ 그리고 그것은 『장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착상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금지된 책을 읽으려는 사람이 책장 모서리에 발라놓은 독약에 중독되어 죽게 만든

12) 희귀한 고서를 주제로 삼은 에코의 또 다른 소설은 『로아나 여왕의 신비한 불꽃』이다. 여기에서 1인칭 서술자는 할아버지의 유품들 사이에서 셰익스피어의 1623년 판 희곡 모음집, 일명 『퍼스트 폴리오(First Folio)』를 발견하고 심장마비를 일으킨다.

다는 아이디어는 양피지나 냅마 종이로 제작된 옛날 필사본들을 많이 접하고 뒤적여본 에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오래된 책들은 서고나 책장 안에서 장기간 보관되는 동안 습기나 탁한 공기로 인한 부패와 침식을 피할 수 없고, 그 결과 종잇장들이 서로 들러붙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상황에서 책을 한 장씩 펼쳐보기 위해 손가락에 침을 발라 책장들의 떼어내 넘겨본 경험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책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는가? 윌리엄 수도사는 책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책의 목적은 읽히는 데 있다. 책이란 기호들로 되어 있는데, 그 기호들은 다른 기호들에 대해 말하고, 그 다른 기호들은 다시 사물들에 대해 말한다. 만약 읽는 눈이 없다면, 책이란 개념을 생산하지 않는 기호들을 갖고 있는 셈이고, 따라서 병어리와 같다.”(399쪽) 이것은 분명히 기호학의 여러 논점들이 녹아 있는 언급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호들의 상호 의존 관계로 인하여 “종종 책이란 다른 책들에 대해 말한다”고 강조하면서 책들 사이에 형성되는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의 그물에 대해 지적한다. 그런데 그런 관계들의 그물이 복잡하게 뒤엉킬 경우에는 “순수한 책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 거기에서 위험한 책이 피어나거나, 또는 역으로 쓴 뿌리에서 열린 달콤한 열매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289쪽)는 것이다. 복잡한 미궁으로 이루어진 수도원의 도서관은 바로 그런 상호모순적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장소로서 기능한다. 그 안에서 호르헤의 웃음에 대한 미달 해석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필사본을 금서로 만들려는 시도가 잉태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대한 책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창조물들을 통해 영원한 삶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상징들의 무한한 보관소”(31쪽)이며, 또한 책들이 모여 있는 도서관은 “인간의 정신이 지배할 수 없는 힘들의 집합소이자, 수많은 사람의 정신에서 나온 비밀들의 보고(寶庫), 그것을 만들었거나 전달한 사람들이 죽은 뒤에도 살아남은 비밀들의 보고”(289쪽)이다. 만약 그것을 진리라고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도달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호들의 연결 고리를 거쳐야 하고, 도서관의 미궁 안에서 헤맬 필요가 있다. 『장미의 이름』에서 도서관을 미궁으로 만든 것은 바로 진리에 도달하기 어려움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윌리엄은 진리에 대하여 “마치 무엇인가에 이르기 위해 세우는 사다리나 그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사다리는 비록 유용하지만 의미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사다리를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495쪽).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 1889~1951)이 『논리철학 논고』 6.54에서 말하는 ‘사다리’, 『장자(莊子)』 외물편(外物篇)에서 물고기를 잡고 나면 ‘통발’을 잊어야 한다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진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에 대해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누군가가 어느 날 그 필사본을 다시 발견할 필요는 없어. 유일하게 유용한 진리란 버려야 할 도구들일 뿐이야.”(495쪽)

이렇게 양면적이고 자기모순 같은 관념은 진리의 덧없음을 말하는 듯하다. 마치 미궁에서 헤매다가 막상 출구를 찾고 나면 해결의 즐거움도 있지만 일종의 허무감과 직면하는 것처럼 말이다. 『푸코의 진자』에서 주인공 야코포 벨보가 최종적으로 깨달은 것도 그랬다. “진리란 아주 순식간이며 그 이후에는 단지 논평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도서관과 수도원이 불타고 한줌의 재로 사라지는 마지막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다. 미궁에서 출구를 찾아 밖으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역설적으로 미궁 안에서 끝없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그러면서 부단히 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즐거운 일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운찬, 『현대 기호학과 문화 분석』, 열린책들, 2005.
- _____, 『움베르토 에코』,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 _____, 「에코 소설의 텍스트 전략」, 『이탈리아어문학』 11집, 한국이탈리아어문학회, 2002, 79~102쪽.
- _____, 「에코의 소설에 나타난 기호학의 문제들」, 『이탈리아어문학』 13집, 한국이탈리아어문학회, 2003, 101~128쪽.
- Eco, Umberto, *Trattato di semiotica generale*, Bompiani, 1975.
- _____, *Lector in fabula*, Bompiani, 1979.
- _____, *Il nome della rosa*, Bompiani, 1980.
- _____, “Postille a *Il nome della rosa*,” *Alfabeta*, n. 49, 1983.
- _____, *Il pendolo di Foucault*, Bompiani, 1988.
- _____, *Interpretation and Overinterpretation*, Stefan Collini (ed.), Cambridge Univ. Press, 1992. (이탈리아어 번역본, *Interpretazione e sovrainterpretazione*, Bompiani, 1995.)
- Eco, Umberto & Sebeok, Thomas A. (eds.), *The Sign of Three. Peirce, Holmes, Dupin*, Indiana Univ. Press, 1983.
- Giovannoli, Renato (ed.), *Saggi su “Il nome della rosa,”* Bompiani, 1985.
- Greimas, Algirdas J. & Courtés, Joseph,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Hachette, 1979. (이탈리아어 번역본 *Semiotica. Dizionario ragionato della teoria del linguaggio*, Casa Usher, 1983.)
- Manetti, Giovanni et al. (eds.), *Semiotica: Storia, teoria, interpretazione*, Bompiani, 1992.

The Name of the Rose and banned book

Kim, Woon—chan

The Name of the Rose, Umberto Eco's worldwide best-selling novel tells about a series of deaths caused because of the only manuscript of Aristotle's second book of *Poetics* on comedy, which is preserved in the library of a Benedictine monastery of northern Italy. Jorge of Burgos, an elderly blind monk tries frenetically to prohibit monks from accessing the text at any cost. First of all he utilizes the labyrinthine structure of the library and many ingenious devices in order to keep anyone from reading the text. Secondly he conceals the text in question, binding it with other texts in a single volume and making it difficult to find out. Another method is to put on poison on the edges of sticky pages of the book so as to kill whoever would try to read it. In addition he uses various kinds of carrots and threats to block the access.

The main reason why he wants to keep monks from reading the Aristotle's text, comes from his so-called 'under-interpretation' of laughter. He believes that laughter makes humans ugly and frivolous, but the second book of *Poetics* is discussing on comedy, that is, on laughter, and so must not be permitted especially in the monastery of God that should be solemn and holy. And yet he couldn't have dared to destroy the manuscript because of Aristotle's authority and reputation. Moreover he couldn't overcome his own mundane desire to conserve privately the manuscript unique in the world, and decided to make it in a kind of unofficial banned book. However, the whole story of mysterious deaths becomes revealed by the brilliant interpretation of signs and rational analysis of the Franciscan friar William of Baskerville.

Key words : Umberto Eco, *The Name of the Rose*, Aristotle, banned book, laughter, interpretation, library

투고일 : 2017. 08. 04. / 심사일 : 2017. 09. 10. / 게재확정일 : 2017. 09. 13.